

<세션1 - 현 정부의 ESG New 로드맵>

민상기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장

우리는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 지구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돌파한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6~7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제 탄소중립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정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총 291.0백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88.6백만 톤을 감축했다. 이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동안 줄인 양의 2배 이상인 202.4백만 톤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이미 녹색성장이 GDP 성장의 40%를 견인하는 중국의 사례 등, 국제사회는 탈탄소 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반면에 다배출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미미한 기후테크 투자 현황 등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엄중한 여건 속에서 정부는 최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2035 NDC를 설정했다. 이처럼 야심찬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개혁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K-GX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새정부의 새로운 로드맵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2025 동남권 ESG 포럼과 같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가 더해질 때,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